

전문 무용예술 지원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 현안

고신영*·김운미**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각 전문 무용예술 지원 기관의 정책현황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무용예술에서 발전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둘째,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지원기금의 균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중복 지원되는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지원사업을 고안하거나 다양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사업선정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보고를 공유, 신뢰도와 투명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문무용예술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창출을 위한 정책개선과 문화예술향유권 확립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중립과 함께 지원사업의 분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국공립, 민간지원 기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혁신의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전문무용, 무용예술지원, 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정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정보와 기술의 시대를 넘어 문화의 시대이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무용 역시 대중적 관심을 크게 얻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에 비해 무용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우혜영, 2011). 이는 무용예술의 발전에 체계적인 지원환경 제도체계와, 지역 간 큰 격차를 벌이는 문제점 등 다른 장르에 비해 정책부분에서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2016년 78.3% 대비 3.2%포인트(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평균 5.6회로 2016년 5.3회에 비해 0.3회 증가했고, 분야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전 분야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19.2.11.). 그 중 무용예술 분야는 다른 예술 행사에 비해 여전히 적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부족한 정책지원,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미디어SR, 2019.4.5.). 실제로 많은 예술들이 생계 문제로 학원 강사, 시간강사로 일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급여나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

* 한양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박사과정, ksy007816@naver.com

** 한양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교수, kimunmi@hanyang.ac.kr, 교신저자

며, 예술인들은 결국 사회에서 무직자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매일노동뉴스, 4.26.).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증가했으나 예술인의 경제상황은 부족하고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문 무용예술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 무용예술 지원 정책에는 신인 양성과 함께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을 위한 창작활동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무용예술 작품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예술분야만을 위한 지원사업과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창작 콘텐츠 개발 및 실무교육 등 전통예술 분야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김운미, 2017).

무용예술작품은 정신구조와 사회구조를 매개체로 안무가가 속한 사회의 요구와 제약 속에서 형성된다(홍성민, 2004). 특히,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인적과 물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작을 제작, 공연할 수 있다. 이에 국가적 지원을 받는 국립무용단 경우에는 각 정권에서 지향하는 문화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주, 안지호, 2011).

이처럼 전문 무용예술지원에 있어서 대중적 인지도는 낮고 대중적인 공연 흥행을 보장할 수 없는 순수예술 분야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기관들의 지원 없이는 창작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용예술은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장기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무용계에서 수행된 예술정책 연구에서는 무용예술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장르와 함께 하는 공연형태의 테두리 안에 함께 묶여져 시행됨으로써 지원예산의 투입 대비 정책의 효율성과 지원 사업의 생산성인 떨어지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우혜영, 2011). 또한, 전통무용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기반 확충과 체계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정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학의 홍보 전략인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과 대중매체 활용, 타 장르간 제휴 강화,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효과적인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박지예, 오유진, 최정민, 민윤지, 2016).

그 외에 분석틀과 이론틀을 적용한 차은주, 김종희(2018)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사고를 적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을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들 중 정책 사업에서 나타나는 정책목표, 방향, 대상 등 세 쌍의 관점에서 분석 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집중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특화된 예술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 지원 정책은 있으나 중앙에서 지방까지 미치는 정책효과의 불분명함, 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용예술 육성을 위해 실효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전달체계 인 뉴 거버넌스 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우혜영, 2011).

이와 같이 무용 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무용계의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연구들은 있으나, 예술 정책에 관련하여 전문 무용예술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과 함께 전문 무용수를 위한 정책은 담보상태고 그들을 위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 무용예술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및 주요 현안을 연구함으로써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국공립기관의 지원체제를 통하여 제도 및 추진체제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용예술지원이라 하면, 생활무용, 일반무용, 전문무용이 모두 포함된 지원정책이라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예술 지원에 관한 여러 국공립기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무용예술의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예술지원을 연구함으로써 무용과 무용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고무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전문 무용예술 지원 기관의 정책현황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무용예술에서 발전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접근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무용예술 지원체제를 국공립기관과 민간 기관으로 구분하고 지원정책 자료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내용에서 무용예술지원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문제를 파악하고 무용예술지원에 있어서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시켰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의 흐름과 무용예술 지원 기관들의 지원사업 내용을 고찰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또, 단행본 2편, 학술지 8개, 학위논문 12개, 심포지엄, 세미나, 신문기사 등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하여 무용정책에 관련된 10개의 전문저널들을 조합하였다.

둘째, 무용예술지원을 유형별로 국공립, 민간 문화예술 지원으로 나누어 지원정책의 형태와, 무용예술 지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각 지역 문화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현황의 편람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문헌자료 수집에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조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국공립 문화예술 단체의 무용 지원사업 현황

공연예술 지원 정책은 세계 각국에서도 크게 공공지원과 민간지원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도 국공립지원, 민간지원으로 나뉘어져 발전되고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공공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위해 만든 단체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이다(황혜영, 2012). 오늘날 21세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과 함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내외 지원사업

현재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는 크게 국내지원과 해외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용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황혜영, 2012). 전략목표로는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문화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 4대 운영방향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예술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 사회통합을 시현하는 문화 나눔 사업 고도화,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예술가치의 대외 확산, 지속가능경영 구현, 전략적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내세워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기부금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지역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소외계층 관람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아르코문화 창작기금,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비평 연구 활성화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올해의 신작 및 레퍼토리지원, 2021년 예정 중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다원예술 창작지원, 문화예술 향유지원, 예술인력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은 공연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와, 작품의 수준, 퀄리티, 쇼케이스는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관객의 반응을 살피는 목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예술계의 담론을 형성과, 공연 지원 사업 및 창작활동에 대해, 대중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창작자에게 작품 구성에 영감을 제공, 전반적으로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평 연구 활성화의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은 무용, 전통예술, 음악, 연극, 뮤지컬 등 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다년간(최대 3년)을 하여, 민간분야 및 창작, 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를 위한 사업으로는 ARKO-PAMS협력사업 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Arko국제예술확산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2020년에 예정인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과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기획 리서치 지원, 국제주요플랫폼 진출지원, 아르크 국제레지던스 개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기획형)은 예술가의 글로벌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 지원과, 글로벌 예술시장에서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 예술시장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예술 지원사업에 관련되어 김운미(2017)연구에서는 해외진출기회 및 예술활동, 창작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공개된 자료는 없어서 구체적인 선정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전통연희 페스티벌, 창작연희 작품 공모 등 전통예술 분야만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으며, 대중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전통문화산업'의 움직임 확대와 전통예술을 재창작한 창작콘텐츠에 관한 실무교육 등 전통예술 분야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김운미, 2017).

2)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국내외 지원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가와 예술현장 종사자들의 활동역량을 장려하는 취지로 예술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예술의 유통 활성화 및 예술단체들의 경영을 전문화시킨다는 전략목표로 두고 있다(이주희, 2017). 이러한 목표와 함께 한국 공연 예술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예술 단체의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예술 경영 및 국제교류 정보의 유통을 시작으로 예술 시장의 발전과 예술 분야 평가 및 정책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크게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용지원사업으로는 글로벌 한국예술의 비전과 함께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교류지원사업, 서울아트마켓 팜스초이스(PAMS Choice)공모, <connection>한국참가자 및 국제협력 우수프로젝트 개발지원, 공연 및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해외 아트마켓 참가지원 등으로 국내외 풍부한 인프라와 다양성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아트마켓<팜스초이스(PAMS Choice)>는 한국 우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고 동시대 공연예술의 최신 경향을 제시하며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와 다양성을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연도와 지원규모가 공개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공시된 선정 단체는 있을 뿐 사업이후 에 사업성과에 대한 선정단체들의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 예산 확대(2013년 144억원→2017년 249억원), 서면계약 의무화와 같은 제도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창작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창작, 복지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법 제도(안정적 재원조달 및 권익보장)의 구축은 미비한 상태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2017~2019).

국공립 문화예술단체별 예술(무용)지원목적 및 사업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상들과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전략으로 논의하

표 1. 국공립 문화예술 단체별 예술(무용)지원목적

지원 기관(설립연도)	지원 사업목적(국내/국외)
문화체육관광부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시장의 공정성 ·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 · 남북 문화 교류협력 지속 · 해외 상호 문화 교류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및 문화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 · 4대 운영방향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예술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 · 사회통합을 시현하는 문화 나눔 사업 고도화와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예술가치의 대외 확산 · 우리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 강화 및 국제적 예술시장 네트워크 형성 ·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유통 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역량 장려 및 예술 산업의 인프라와 다양성을 국내 외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구축 · 한국예술의 유통 활성화 및 예술단체들의 경영 전문화 · 한국 공연 예술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예술 경영 및 국제교류 정보의 유통과 예술 시장의 정책연구 강화

고 연구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용예술 안에서도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무용지원 또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2. 국공립 문화예술 단체의 예술지원(무용)사업 내용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사업 내용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지원	- 무용예술 분야의 소극장 활성화 - 예술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청년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 - 예술현장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창작실험활동지원	- 창작 과정 및 시도와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창작 자체에 집중 가능한 환경 조성
	공연예술비평 연구 활성화지원	-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지 발간 사업 - 비평연구 학술행사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비평 활동 사업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 공연예술작품 창작, 발표의 기회 제공 - 일반국민과의 접점 확대 기여
	공연장대관료지원	-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 완화 - 기초공연예술 활성화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올해의 신작 및 레퍼토리지원	- 공연예술현장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동시대의 창작공연 및 제작지원 - 우수 창작공연 레퍼토리로의 성장과 국내외 무대로 진출하는 토대 마련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프로젝트 다년간 지원(최대 3개년)을 통한 민간분야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 기반 마련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및 연구 활동 지원 -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 신뢰 구축 및 문화공동체 형성 기여
	문화예술 향유지원	- 역량있는 예술단체 선정 - 공연장 외 다양한 시설과 야외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예술 프로그램 제공 - 국민과 함께하는 향유지원
	예술인력 육성 지원	-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정 지원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에게 문화예술기관 근무경험 축적의 기회 및 전문교육 제공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Arko국제예술확산지원	- 우수한 공연작품의 해외초청지원 -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활성화
	국제예술 교류지원	- 국내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함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청년예술가 해외 진출지원	

서울아트마켓 팬스초이스 (PAMS Choice)공모	- 한국 우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 - 동시대 공연예술의 최신 경향 제시 - 전략 홍보를 통해 해외 진출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 <connection>한국참가자 및 국제 협력 우수프로젝트 개발지원 - 해외시장 공연예술 진출 기반 마련 - 다양한 형태의 해외 리서치와 후속 프로젝트 개발 지원
해의 아트마켓 참가지원 공연 및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해외아트마켓에서 단체 쇼케이스 참가지원 및 기획자의 홍보활동 지원 - 마켓 내 국가관 전시, 컨퍼런스 등의 특집을 개최하여 직·간접적인 해외 프로모션 제공 - 국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축제의 장

2. 민간 문화예술 단체의 무용 지원사업 현황

국공립문화 예술단체 이외에 무용예술지원 사업을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민간 문화예술 단체로는 전국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한 13개의 문화재단이 있다. 지방자치 단체 소속 문화재단은 약 50여개가 있으며 총 63개의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정책 및 지원을 하고 있다(정지영, 2017). 각 광역지방자치체의 문화재단으로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을 들 수 있다.

1)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의 목적으로는 전통예술, 무용, 음악, 연극의 발전가능성과 우수한 작품을 발굴, 육성하여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 시키고 공연예술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신작 창작활동 및 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을 지원하고 보존해야 할 작품을 선별하여 가치가 있는 전통 공연예술의 작품 전승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크게 예술가 지원과 청년예술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모사업 중 무용부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민간협력으로 메세나 지원, 연구서적 발간지원, 예술축제지원, 예술작품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창작작업실, 연습실지원(舊, 민간창작공간지원사업),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최초 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다.

예술축제 지원은 축제 콘텐츠 제작과 예술인간의 교류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한다. 또한 예술축제를 활성화하여 자생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발굴한다.

2)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은 1997년부터 문예진흥 공모지원 사업을 전개해나가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그 역량을 굳게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지원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경기예술활동지원, 경기예술창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예술국제교류지원의 4개 영역에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원사업은 기초예술분야를 매개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과 창작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예술국제교류지원을 통해 경기 예술인의 해외 예술교류 활성화 및 우수한 창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 단체의 자생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의 창작과 활동, 유통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의 목적으로는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조성을 위해 문화거점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예술창작지원을 전략과제로 두고 있다. 예술표현활동 지원 부문은 안정적 지원구조를 마련하여 분야별 조직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창의적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무용분야와 전통예술분야에서 각 무용장르와 관련 축제형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또한 신진예술가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신진예술가들이 인천에서 작업할 기회를 만들고, 심사과정에서 서로의 창작 작업을 통해 네트워크(유·무형) 형성과 후속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 문화의 창의성을 개발과 전통을 계승하고 인천 지역주민에게 한단계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을 공급해주고 있다. 민간 문화예술 단체의 예술지원(무용)사업 내용 지원목적 및 사업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민간 문화예술 단체의 예술지원(무용)사업 내용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사업 내용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예술인/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 및 예술적 역량 강화도모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안정적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제품 제작발로 촉진 - 공연장 운영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유망예술지원사업	- 다양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자 발굴 및 지원 - 창작자의 역량 개발 함으로써 내용적, 형식적 실험기회 제공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장르간 교류 및 협업기회 활성화 - 편의성 제를 위한 지원절차 및 서류 간소화
	최초예술지원사업	-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기회제공 -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
	서울청년예술단 지원사업	-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 활동기반 조성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활동지원	- 도내 31개 시군에서 펼치는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 - 지역 특화 예술제 및 장르와 지역을 넘나들며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복합형 기획예술프로젝트 등 지원
	경기예술창작지원	- 유망 작가의 발굴과 창작을 위한 지원에서부터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우수 작가에 대한 창작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 지역민에 대한 우수공연서비스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수준 높은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
	예술국제교류지원	-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향상의 기반 마련 - 예술의 창작과 활동, 유통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	- 문화예술 분야별 효율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지역 문화의 창의성을 계발 및 인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 공급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수준 높은 공연문화 활성화 기여
	신진예술가 발굴지원 (바로 그 지원)	- 경력이 일천한 신진예술가의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을 도움과 동시에 자생력 확보 - 청년예술인 생애처음지원
	인천예술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 유망예술가 활동지원 - 중진예술가 활동지원 - 원로예술인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및 장르간 협업기회 제공

3. 주요현안

지금까지 국공립기관 및 민간기관의 무용예술 지원체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사업의 유형은 <표 4>와 같이 구분되었다. 각 단체별 신인양성, 창작지원, 국제교류, 해외진출, 육성지원, 공간지원의 6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실행 현황을 우수(○), 보통(△), 미흡(x)으로 표기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전문 무용예술의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표 4. 국공립 및 민간 문화예술 단체의 예술지원(무용)사업 유형

구분	지원 기관	신인양성	창작지원	국제교류	해외진출	육성지원	공간지원
국공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	○	△
	예술경영지원센터	△	△	x	△	△	x
민간	서울문화재단	△	○	x	x	△	△
	경기문화재단	△	○	△	x	△	△
	인천문화재단	△	△	x	x	△	△

첫 번째, 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그동안 지원사업에서 단체에 대한 간접 지원과 개인지원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단체별로 지원대상과 함께 유형의 변화가 있었다. 현재는 공공지원제도와 함께 간접지원과 예술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용복(2019)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예술인단체에서 재공연 지원 사업에 대한 공간제공을 단순한 소비처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공립, 민간기관에서는 일회성지원으로 끝나는 신작과 재연작품에 따른 지원 구분지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에 맞추어 선정의 범위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무용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무용인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예술가 지원과 예술작품 지원을 명료화 시킨다면 분명 예술가 지원 뿐 아니라 예술작품지원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 요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7일 무용계 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전통춤 저작권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저작권 등록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와 함께 무용 저작권을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이데일리 뉴스, 2019.9.24.)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무용의 저작권 관련에 있어서 전통예술지원 사업에서도 전통무용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전통무용의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적용시켜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세 번째, 지역별 지원기금의 균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해당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규모도 다양하다. 즉, 지속적인 재정력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재단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의 예산 약화로 기금사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재단들도 많다(박현숙, 김태영, 2015).

네 번째, 중복 지원되는 사업들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과, 민간을 살펴보니 중복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청년예술가지원사업, 예술작품지원사업, 국제교류지원사업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지원사업을 고안하거나 다양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으로 내놓은 생활예술 부문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개설할 수 있다. 이미 예술정책에 있어서 생활예술에 대한 재정향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되었던 것처럼, 문화예술의 의미가 보편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처럼 복지형 생활밀착 문화예술로써 무용영역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다가서야 한다(김지영, 김형남, 윤정은, 2015).

다섯 번째, 사업선정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보고를 공유, 신뢰도와 투명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로 심사문제점에 관련되어 지원심의 옴부즈만도 시행하여 심의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심의공정성 설문조사에서 '공정하다' (62.8%), '공정하지 않은 것' (32.2%)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심의위원 선정방식, 심의 기준, 참여 심사위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차보고서, 2018). 결국 심사문제점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사업목적별 심의위원 선정의 구체적인 틀의 마련과 심사위원 구성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운미, 2017).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지원기관의 투명도와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각 전문 무용예술 지원 기관의 정책현황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무용예술에서 발전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두 번째,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 지역별 지원기금의 균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 번째, 중복 지원되는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지원사업을 고안하거나 다양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사업선정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보고를 공유, 신뢰도와 투명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처럼 전문무용예술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창출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향유권 확립을 위해 생활예술을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순수무용예술 지원과 함께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중립될 수 있는 지원의 초점을 맞춘 사업의 분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문화재 분야 정책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양혜원(2019)은 사회구성의 다변화와 불평등 및 갈등의 심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빠른 흐름 속에서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해 재조명 되고 있는 부분과 정책적 해결방법에 대한 요구사항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국공립, 민간지원 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혁신의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위한 공식적 지원의 필요성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김정수, 2008).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 무용예술지원을 위한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향후 전문 무용예술 지원사업의 유경험자 대상 설문과 면담 보강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의 지속적인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무용예술의 지원을 위한 발전 가능성의 정책의 수준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무용분야에 대한 정책과 현황자료들을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전문무용예술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보강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화예술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gcf.kr.
- 김운미(2017). 4차 산업시대 한국춤의 글로벌 확산 전략 소고. *우리춤과 과학기술*, 39, 9-40.
- 김정수(2008).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문화정책논총*, 20, 163-191.
- 김지영, 김형남, 윤정은(2015). 문화예술정책의 맥락에서 ‘일상생활 속 무용의 확산’: 문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용육성의 방안 모색. *한국체육학회지*, 54(5), 691-703.
- 뉴스시스(2019. 02. 11.). 우리나라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15년만에 80%대 진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9053642>.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미디어SR(2019. 04. 05.). 예술인 72.7% 월수입 100만원 미만.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05>.
- 매일노동뉴스(2019. 04. 26.). “예술인도 노동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96>.
- 박지예, 오유진, 최정민, 민윤지(2016). 한국 전통무용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6(3), 117-127.
- 박현숙, 김태영(2015). 문화예술기관의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연구: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5(0), 390-415.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 양혜원(2019).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예술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문화재 분야 정책성과와 과제’. pp. 9-88.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okams.or.kr
- 우혜영(2011). 무용예술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데일리 뉴스(2019. 09. 21.). [현장에서] 첫 걸음 댄 무용저작권 논의, 결과로 이어져야. <https://news.v.daum.net/v/20190921061008750>.
- 이용복(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공연 직접지원제도 현황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주희(2017). 한국 문화예술지원 유형에 따른 무용공연예술의 발전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ifac.or.kr.
- 정지영(2017). 지방자치에 따른 창작활동 참여를 위한 지역 행정지원의 사적고찰 :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질서경제학회*, 20(1), 45-63.
- 차은주, 김중희(2018). 전략적 사고를 적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문화예술교육연구*. 13(2), 21-4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 홍성민(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이론과 현실의 비교정치학. 서울:살림.
- 현주, 안지호(2011). 문화정책과 국립무용단 작품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7, 231-252.
- 황혜영(2012).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문화향유권 확대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ABSTRACT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Art Support Programs for Professional Dance

Sinyoung Ko* Hanyang University · Unmi Kim**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policy and major issues of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 field of dance and to understand what approaches are considered to expand and develop the basis of professional dance.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specific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should be determined. Second, support for traditional art projects should be expanded. Third, support funds should be balanced regionally. Fourth, projects that are receiving support through more than one channel should be rearranged and new projects should be devised or diversified. Fifth, the credibility and transparency of projects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ntinuous management and reporting of beneficiaries. This research identified a strong need to further improve the policy for promoting high-standard art production for professional dance. In addition, acknowledging that arts in closer relation to everyday life are being emphasized to expand the basis for culture and art enjoyment, it is important to fairly distribute support across different sectors including classical dance. Prior to this, there need to b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ward ensur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Arts Council Korea, and concrete efforts to implement innovative agendas.

Key words : professional dance, dance art support, art support program, arts and culture policy

논문투고일: 2020. 02. 25

논문심사일: 2020. 04. 09

심사완료일: 2020. 04. 09

* Ph.D. in Dance, Hanyang University / ksy007816@naver.com

** Professor of Dance Department of Hanyang University / kimunmi@hanyang.ac.kr